

# <국제 브리핑 비교를 통한 한국인 영어 화용 능력 고찰>에 대한 토론문

조원형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언어학)

한지원 선생님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영어에 관한 연구이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등 다른 언어의 화용 능력을 연구하는 데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성과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Fraser가 대명사를 거리 두기 전략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하시면서 “원어민 화자의 경우 it이나 we 등의 대명사를 사용해서 객관적 구조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학습자들에게서는 문법적 해석에 치중된 관점이 나타난다고, 즉 I와 you 관점에서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WHO 코퍼스와 백악관 코퍼스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WHO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방식이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마지막으로 한 편의 브리핑당 텍스트 길이는 어떠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주제가 비슷하다고 해도, 즉 예컨대 모두 팬데믹 상황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각 텍스트별 문체적 특성 역시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도 담화표지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주제별, 내용별, 브리핑 방식별, 텍스트 길이별’ 연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